

<태백산맥>에 형상된 미시사와 대중성

권 은 미*

차 례

- | | |
|--------------------|------------------|
| 1. 역사와 역사소설 <태백산맥> | 4. 망탈리테와 가능성의 역사 |
| 2. 우연성과 이데올로기 | 5. 마무리 |
| 3. 기억의 유포와 전이 | |

국문초록

<태백산맥>은 전체 10권으로 구성된 다권본(多卷本)으로는 처음으로 200쇄를 돌파하는 대중적 성공을 이룬 작품이다. 본고는 작품의 이러한 대중적 성공 요인에 주목한다. 먼저 문학 작품의 대중적 성공은 작품이 시대와 독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합될 때 가능한 결과일 것이다. <태백산맥>이 창작·완간되었던 80년대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 해방, 해방 후 발생한 이데올로기 관련 사건들, 전쟁, 독재정치와 같은 이 땅의 내재된 문제들이 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사회적으로 표출되던 시기였다. 이 점은 <태백산맥>의 등장시기와 대중적 호응이 무관하지 않음을 추론 가능케 한다. 하지만 <태백산맥>의 대중적 성공이 단순히 시대적 문제와 결부된 것이라면 작품이 완간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스테디셀

* 울산대

리로 자리매김하는 데 대한 적절한 답이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태백산맥>의 대중적 성공의 요인이 시대적 요구에 대한 적절한 부합과 더불어 역사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해명에 있어서 정당성을 얻음으로서 독자의 요구에 부합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 인간의 생활이 모든 예술의 근원임에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는 것인바, <태백산맥>은 인간 생활의 형상화를 통해 역사를 읽어내어야 하는 역사소설로써의 미덕을 지녔다 할 것이다.

인간의 생활이란 문학작품에 형상되는 개인들의 삶이 다양한 경로에 의해 얽히고설키며 시·공간 속을 변주해가는 모습에 대한 커다란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생활이라는 큰 시각을 구성하는 요소는 개인이라는 존재이다. 기존의 역사적 관점에 의하면 개인이란 역사와 상반된 의미로 이해되어 왔다. 개인과 개인의 만남, 우연에 의한 변화, 기억, 개인의 심성에 내재된 다양한 지표들은 역사의 주변부에 존재하는 하위역사 혹은 주관적 요소 인식되었다. 기존 실증적 역사는 역사의 주체인 인간을 역사라는 과제 해명을 통해 적절하게 구현해내지 못했다 할 것이다. 본고는 <태백산맥>이 개인의 삶을 형상화함으로써 기존 역사에 대항한다고 본다. 또한 본고는 개인과 역사의 의미를 읽는데 있어서 미시사를 사용하고자 한다. 미시사는 개인과 역사의 문제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방법론이 될 것이다.

역사소설은 역사서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역사소설은 인간의 생활이라는 요소를 적절하게 살려냄으로써 기존 역사의 거시사적 관점을 교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역사란 단순히 결과론적인 계량화가 아닐 것이다. 역사의 주체가 언제나 인간이라는 점에서 역사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그 본질로 삼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미시사, 거시사, 우연, 기억, 심성

1. 역사와 역사소설 <태백산맥>

역사가 인간의 발자취를 기록한 것임은 자명하다. 단 역사의 한자표기가 歷事가 아닌 歷史¹⁾라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전자가 대상의 행위를 펼치는 방식을 지닌다면 후자는 대상을 명령 속으로 불러들이는 방식을 취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이진경에 의하면 ‘력스(역사)’라는 단어가 <독립신문>에 처음 등장한 것은 1898년이다. 하지만 <독립신문>의 경우 역사책이나 역사적 기록을 뜻하는 단어로 ‘스기(사기)’를 지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저자는 ‘력스’라는 단어가 근대적 역사관념으로 사용된 곳이 <대한매일신보>이며, 이것이 근대적 ‘민족’의 탄생과 무관하지 않다²⁾고 본다. 이는 ‘역사’가 역사적 사실의 기록으로 정의되기 시작한 시·공간이 근대라는 새로운 질서체계와 무관하지 않음을 추론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변화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필요에 의한 것이라 하겠지만 다분히 근대적 계량화를 통한 세계 재편에 대한 요구로 읽혀지는 면이 있다 하겠다.

-
- 1) 허경진은 역사의 서문에서 『삼국유사』(三國遺事)는 ‘잃어버린 사실’ 또는 ‘남겨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일연은 김부식의 『삼국사기』(三國史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썼다. 일연은 남겨진 이야기이지만 우리조상들의 상상력이 담겨 있는 이야기가 많으며 그것이 참이라고 생각했다. “일연은 때로 『삼국사기』나 그 밖의 역사책을 검토하면서 그 기록의 오류를 찾아내고 바로잡았다. 우리는 일연이 채택한 기록을 상상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일연 자신은 엄격한 사관(史官)의 모습으로 집필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유사(遺事)의 글쓰기”이다. 일연, 이가원·허경진 옮김, 『삼국유사』, 한길사, 2006, 25-37쪽. 본고는 서적 기록이 지닌 주변성이 사적 기록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2) <대한매일신보>에 ‘력스’라는 단어가 “1904년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1905년에 3회 사용되었을 뿐인데, 1907년에는 2회로 늘어난다. 하지만 1908년에 이르면 무려 118회로 급증”한다. 또한 ‘민족’이란 단어가 “그 전까지는 전혀 사용되지 않다가 1908년 느닷없이 135회나 사용”되었다. 이진경, 『역사의 공간』, 휴머니스트, 2010, 330-334쪽 참고.

현재의 관점에서 ‘역사’³⁾와 ‘문학’의 거리는 확연해 보인다. 역사는 실증성을 기반으로 한 계량적 의미로, 문학은 허구성을 담보로 한 개인적 영역으로 여겨진다. 달리 말해 ‘역사’와 ‘문학’은 ‘객관’과 ‘주관’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식을 기반으로 삼는 듯 보이기가까지 한다. 하지만 “본래 인간이 역사에서 원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라 ‘교훈’이었”⁴⁾으며, 이야기 장르의 역사적 성격을 감안한다면 ‘역사’와 ‘문학’의 확연한 분리는 모호한 점이 없지 않아 보인다.

‘역사’와 역사소설 또한 마찬가지이다. 역사소설이 ‘역사’가 아닌, ‘역사적’ 사건을 허구적 구성을 통해 형상화 한 것이라는 단서는 역사소설이 ‘역사’와는 다른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음으로 의미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문학’이나 그 하위 장르인 ‘역사소설’이 문제적 인물이나 사건을 다양한 층위로 형상하여 역사기술을 넘어서는 사실성을 지닌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이다.

2005년 <태백산맥>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더불어 200쇄를 돌파했다.⁵⁾ <태백산맥>이 10권으로 구성된 다권본(多卷本)인 점을 감안하면 작품의 대중적 성공은 현대문학사에 있어서 최초인 셈이다. <태백산맥>은 완간 전 최원식과의 논쟁⁶⁾으로부터 시작하여

3) “역사가들은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보편 역사’를 기술하고, 역사는 민족국가(nation-state)를 중심으로 일관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통일적인 체계라는 집합 단수로서의 ‘역사(History)’ 개념을 발명하였다. …중략… 이제 역사는 ‘서사적 역사’, ‘이야기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문제 중심의 역사’로 나아갔다. 그리고 전통적 역사 연구는 사회과학적 역사 연구라는 새로운 형태로 대체되었다.” 김기봉 외,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학』, 푸른역사, 2008, 348쪽.

4) 위의 책, 23쪽.

5) “국내 본격 문학작품으로 <태백산맥>이외에 200쇄를 돌파한 책은 조세희씨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유일”하다. 이왕구, 한국일보, <민족통일 위해 남북 모두 화해노력 이성 찾아야>, 2009. 3. 3.

6) 우선 1987년 최원식과 조정래 간에 오간 논쟁은 총 4차례이다. 권영민, 『太白山脈 다시읽기』, 해냄, 2006, 49-66쪽. 혹은 한국일보 1987년 7월 3일, 4일, 8일, 11일 참고.

국가보안법위반혐의와 이적성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작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백산맥>이 엄청난 대중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태백산맥>의 대중적 성공요인으로서 우선 작품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 있음을 들고자 한다. 작품이 등장하여 완간된 시기는 80년대이다. 80년대는 군사정부에 의한 반공강화와 검열이 엄연히 존재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80년대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비롯하여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시위와 시위대를 향한 폭력적 진압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했다. <태백산맥>은 이러한 특별한 시기에 등장하였다. 80년대라는 특별한 집필시기와 작품이 묘사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작가는 신변의 위협과 고초⁷⁾를 겪었지만 상대적으로 대중들은 <태백산맥>을 통해 민족문제와 난마처럼 얽힌 시대적 모순의 근원을 찾고 반복되는 역사적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또 다른 <태백산맥>의 대중적 성공요인으로 작품이 형성하는 인간의 생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태백산맥>이 인간의 생활을 묘사함에 있어 역사적 설득력과 당위성을 얻고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인간의 생활 묘사를 통해 결정적 역사관을 넘어서고 있다고 본다. 본고는 인간의 생활 묘사를 개인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즉 인간의 생활은 소설을 구동하는 원동력으로서 보편적 인물상이지만 그 모든 요소를 개인으로 본다. <태백산맥>은 1945년 이후 1950년 한국전쟁으로 곧바로 이어지며 역사서가 가려놓은 공백을 개인의 삶과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적 삶을 통해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품은 역사가 개

7) 이층재, 한국일보, <검경, 소설 「태백산맥」 수사 “곤혹”>, 1994. 4. 23., 황영식, 한국일보, <소설 태백산맥 “이적성 검토”논란>, 1991. 4. 11., 김동훈, 한겨레, <태백산맥> 작가 조정래씨 무혐의 처리키로>, 200. 3. 28. 그 밖에 ‘한국논단’의 자료 <<태백산맥>을 고소, 고발한다>, <事實과 史實을 왜곡한 《太白山脈》>, <太白山脈과 趙廷來를 구속하라>에서는 <태백산맥>이 국가보안법 7조1항 및 동 5항을 위반하였으며, 일부 여성 성기묘사부분을 들어 섹스와 반미를 선동하며, 조정래의 일체 의식구조는 구체불능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인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역사적 사건과 맞닥뜨린 개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역사가 개인에게 무엇이며, 지난 역사가 오늘날 개인에게 무엇을 제공하는지를 유추 가능하게 함으로써 역사서 기능을 뛰어 넘는다 하겠다. 다시 말해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갈증은 기왕의 자료를 수집하여 풀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건 속에 살아 숨 쉬던 개인의 삶이 어떻게 역사와 마찰하며, 어떻게 진행되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는 힘들다 할 것인데 <태백산맥>이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할 것이다.

역사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근대적 의미의 역사이든 역사적 장면을 묘사한 소설이든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태백산맥>이 형상하는 ‘역사’와 ‘인간’의 연결고리를 해명하는데 있어서 미시사⁸⁾의 관점은 유용해 보인다. 미시사가 추구하는 거리 없음과 그를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역사적 해석방법은 비단 ‘역사’에서만이 아니라 역사소설 해석에 있어서도 유용한 방법론이 될 것이다.

8) 미시사의 특징은 다음 같다. 첫째 미시사는 이름 그대로 역사의 리얼리티를 작은 규모 또는 척도를 통해 보고자 한다. 둘째 연구의 초점이 개인이든 공동체 전체에 있던 간에 미시사가는 거의 언제나 실제의 이름들을 추적한다. 셋째 미시사는 대체로 사회를 문화적 텍스트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소규모 공동체의 개인들을 추적하며 그들의 행적과 관계망을 구체적으로 밝히다 보니, 미시사가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식으로 서술한다. 다섯째 미시사는 거의 예외 없이 ‘가능성의 역사’를 지향한다. 광차섭, 『미시사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07, 25-28쪽. 미시사는 단순히 작은 것에 몰두하는 듯 하지만 작은 요소들을 통해 넓은 창을 바라볼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단 “미시사에 대한 논쟁이 이론적인 텍스트나 선언을 토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론적 배경에 있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위의 책, 57쪽. 진즈부르크의 특징에서 나타나듯이 “하층계급의 삶과 문화를 역사의 망각 속에서 건져 올리려고 애”쓰므로써 실증적 역사관을 넘어 서고 있다 할 것이다. 위의 책, 298쪽.

2. 우연성과 이데올로기

정치와 경제를 중심으로 한 거시사가 정책결정자나 유포·재생산자인 언론기관 또는 일부 선동가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며, 그 소수 집단과의 대외역학관계를 통해서 재생산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형성된 거시사는 인간의 생활을 적절하게 반영하거나 교훈을 주기보다 사용을 위해 만들어진 역사라는 의구심을 일게 한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거시사의 수용자 위치에서 개인은 제외될 수 없는 성격을 지녔다. 이렇게 거시사는 개인이라는 역사 주체에로의 전이 과정에서 보편화 되지 않고, 필연적 의미변화를 일으킨다. 거의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역사 또한 개인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상황과 감정에 의해 개별적인 특수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태백산맥>은 작품의 등장인물, 개인의 적실한 삶⁹⁾을 통해 역사성을 구현한 작품이다. 그중 3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젊은 학생들의 삶의 방향과 인식은 작품의 시작부터 묘사된다. 학생들은 부모의 죽음이라는 폭력적 상황과 함께 역사와 조우하며 그 사건은 학생들의 사상형성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작품 전 이미 솔공장 윤영춘, 윤부자로 불리는 윤영부, 광주상회 양병갑, 세무서장 최익현, 남도여관 현준배, 금융조합장 송기묵은 사망한 상태이다. 여순사건 직후 14연대 반군 및 좌익 청년단체원, 노동자, 학생로 구성된 반란세력은 관공서 및 중요기관을 점거하고 경찰, 우익인사, 우익 청년단체원을 색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¹⁰⁾가 발생했다. 이

9) “미시문화사는 사회적 경제적 행위들을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적 텍스트로 간주하면서, 구체적 개인이란 창을 통해서 역사적 리얼리티의 복잡 미묘한 관계망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겠다.” 김응중, 『아날학파의 역사세계』, 아르케, 2002, 7쪽.

10) 1948년 10월 20일부터 경찰간부 혹은 우익요인(갑부, 우익단체 간부 등)에 대한 색출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체포된 경찰이나 우익인사들이 모두 처형된 것은

시기 반란 소식을 접한 우익인사들과 염상구와 같은 청년단들은 도망하여 회를 면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별교의 토착권력층이자 우익인사였던 인물들은 목숨을 잃는다.

“고 오살혈 늪덜이 꺾여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꺾였당께요. 지금도 계속 조사 중인데, 오늘 아침해정 확인된 것만 100명이 넘었던 말이요”... 중략...“100을 꺾었던 200을 꺾었던 고런 건 다 과거지사고, 인자부툼은 우리덜이 혈 복수전이 남았구만요.” (<태백산맥>, 1:179)

소록도에서 돌아온 염상구가 처남 신석주의 일로 순천행 기차를 타러 가던 김범우와 만나 나누는 이야기이다. 복수를 다짐하는 염상구의 말은 3세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경찰에 끌려갔다가 사흘만에 풀려난 들몰택은 다음날밤 시아버지인 하판석의 생존에 안도하며 잠들지만 5개의 몽둥이에 테러를 당하고, 그 과정에서 하판석이 사망한다. 테러의 주인공이자 다섯 개의 몽둥이는 염상구에게 허락을 받은 윤태주, 양효석, 최서학, 현오봉, 송성일이 든 것이다. 이들은 반란군이 읍내를 장악한 기간 동안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밤중 테러를 감행¹¹⁾했으며, 사망자를 발생시키기에 이르렀다.

학생신분의 이 다섯 명은 아버지의 권력과 재산의 영향아래 평온한 삶을 영위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건의 발생이 그들의 일상을 파고들자 손에 몽둥이를 들기에 이른다. 역사가 개인화되는 지점은

아니었다.” 이 시기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대부분 ‘악질반동’으로 낙인 찍혔던 인물로 “반란군의 여수 점령기간중 즉결처분 및 ‘인민재판’에 의해 피살된 인원수는 200여 명이었으며, 그중 경찰이 74명 포함되어 있었다.” 또 “순천의 경우 여수보다 점령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400여명의 관민(官民)이 사망했으며...중략...여수보다 순천에서 경찰 혹은 우익요인들은 더욱 무참하게 살해되었다. 황남준, 「전남지방정치와 여순사건」, 『해방전후사의 인식3』, 한길사, 2008, 446-468쪽 참고.

11) 그들은 염상진의 집부터 시작해서 오늘 밤 하대치의 집까지, 사흘 밤 동안 일곱 집을 쓸었다. 조정래, <태백산맥>1, 해냄, 2010, 298쪽.

사건의 발생과 충격으로부터라 하겠다. 역사란 그 특성상 개인에게 일일이 이해되기보다 개인의 일상에 우연히 떨어지는 것으로서 역사 그 자체가 생활로 받아들여진다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우연의 변곡점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선택이 다시 역사적 인식의 배경으로 작용된다.

사람을 하나 죽이는 바람에 활동을 중단당하고 말았지만 그는 아직도 스스로를 멸공단 단장으로 자처하고 있었다. 그는 그 활동을 중단당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었고, 언젠가 기회가 오면 다시 활동을 시작할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공부에는 전혀 뜻이 없는 그가 굳이 멸공단에 애착을 갖는 것은 공산당에게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중략…국회의원이라면 한자리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남모르게 품고 있었다. 그 먼 꿈을 위해 그는 멸공단 같은 어떤 조직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태백산맥>, 5:37-38)

다섯 명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윤태주는 전후 실시된 인민재판을 통해 총살¹²⁾당한다. 그의 욕망은 이렇게 끝을 맺지만 현실세계에는 많은 윤태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윤태주와 같은 인물이 실제 훗날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는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테러에 참가거나 복수하지는 않지만 송기묵의 딸인 송경희와 윤영춘의 딸인 윤옥자의 공산주의·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인식은 지주의 자녀라는 기본적 토대위에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강하게 작용하며 고착되고 있다.

시를 쓰려고 펼쳐놓은 백지 위에는 자신도 모르게 정하섭의 이름과 사랑을 앓는 언어들 이 낙서로 채워지고는 했다. (중략) 그런데……바로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였던 것이다. (중략) 그를 철저하게 미워해야 한다고, 철저하게 증오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부르짖고 있었다. (<태백산맥>, 2:291)

12) 조정래, 앞의 책 7, 해냄, 2010, 67쪽.

전 빨갱이는 죽어도 싫어요. 그것들 생각은 무경우하고 뻔뻔스럽고, 하는 짓은 징그럽고 더러워요. (중략) 염상진 제까짓 게 뭘데 우리 아버지 질 죽여요. 우리 아버지가 제놈한테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빨갱이는 제 평생, 아니에요, 우리 식구 평생 원수예요. (<태백산맥>, 6:307)

물론 송경희는 정하섭과 김범우를 좋아하지만 애정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큰 사상적 괴리가 놓여있다. 이후 송경희가 최서학과 관계한 것을 보면 정하섭과 김범우에게 지냈던 그녀의 애정은 단순히 사회적 지위와 인물에 대한 선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그러한 선망조차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극단적 사건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고, 애정이 그녀의 의식을 바꾸어놓는 계기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녀의 반공의식은 전쟁 발발 후 시행된 인민재판장에서 가서 염상진을 바라보며 더욱¹³⁾ 커진다. 이 재판에서 사망하는 윤태주의 동생 윤옥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녀가 생각하는 진정한 인간은 송경희의 의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선택에 의한 개인들에 국한되었다.

“무신 소리년 무신 소리여라!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 죽인 것이 누군지 몰라서 어무님언 고런 소리 나한테 허고 그요? 나한테년 남편 하나만 있제 큰집이고 지랄이고 읍어라. 포도시 참고 사는 나 가슴에 불 질르지 마세요.” (<태백산맥>, 9:277)

윤옥자는 남편인 염상구가 염상진의 동생이지만 남편으로 받아들인 대신 염상진의 어머니인 호산댁과 아내인 죽산댁 그리고 조카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빠인 윤태주로 미루어 윤옥자가 아버지의 죽음만을 계기로 포악스러워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아버지의 죽음이 그녀의 포악

13) 저 숲장수 아들놈이 감히 어디서, 저놈은 교활한 여우다. 천하고 더러운 것이 어저대 대가리를 잘못 타고나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무시한 것들은 저런 교활한 놈들한테 박수나 쳐대며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조정래, 앞의 책 7, 해냄, 2010, 66쪽.

성을 정당화시키며 향후 그녀의 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찬탈과 경제적 수탈이 낳은 한민족의 수난과 그 심각성은 일반적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 그 중에서 일본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은 당시 자작농이던 수많은 농민을 소작농으로 전락시켰다. 1913년 41.7%이던 소작농의 비율이 1945년에 이르면 69.1%¹⁴⁾라는 비약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은 그 단적인 예라 하겠다. 또한 반타락이라 불리던 소작료가 기울어 소작농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지주와 중간계급인 마름에게 인적·물적 지원을 바쳐야 했던 소작농의 생활은 그야말로 기아와 죽음의 경계에 내몰렸다.

하지만 일본이 패망하고 민족에게 주어진 해방도 이러한 기아와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해방 후 민중들이 가진 열망과는 상관없이 미군에 의한 미곡수집과 쌀값의 폭등¹⁵⁾으로 인한 기아가 심해졌다.

(전략)미군은 군정을 실시하자마자 민심을 선동해 대고 있던 공산당을 외면하고 한민당과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일본식의 통제방법을 전면 폐지하고 미국식의 ‘자유시장’체제를 실시했던 것이다. (중략)그 조식을 이용해서 무작정 쌀을 사들였다. (중략) 쌀값은 상상보다도 훨씬 무서운 기세로 치솟아오르고 있었다. 네댓 달 만에 100배를 넘어섰고, 반년이 지나면서 150배가 되었다. (<태백산맥>, 2:17-18)

작품 속 최익승은 자신의 금권을 동원해 이익을 편취하는 전형적 친일·친미 성향의 인물이다. 최익승은 일본의 패망이자 조국의 해방을 “느닷없이 떨어진 벼락” (<태백산맥>, 2:16)으로 인식하지만 곧 “미군정

14) Bruce Cumings, 김자동 옮김,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986, 79쪽.

15) 『한국전쟁의 기원』에 의하면 47년 2월에 전년보다 쌀값이 약 100배 상승하였으며 Bruce Cumings, 위의 책, 462-471쪽 참고. 물가 상승에 비해 임금 지수는 낮아 생계가 어려울 정도였으며, 실업이 증가했다고 한다. 황남준, 「전남지방정치와 여순사건」 『해방전후사의 인식3』, 한길사, 2008, 423-429쪽 참고.

이 베풀어준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태백산맥〉, 2:17)감읍하는 기회주의적 면모를 드러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익승은 그 편취와 민중의 고통을 뽑아 얻은 자금력을 동원해서 기부금을 내고 정치적 입지를 다지게 된다. 이는 그 시대가 해결하지 못한 채 굵은 상처로 재생산되고 있는 현실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요것이 무신 해방된 시상이여. 해방됐다고 공연시 맘에 바람이 들다 봉개 살기만 더 팍팍허제” “참말로 환장얼 혈 일이시. 있는 쌀이나 고이 내노라고 혀도 눈에 불이 키일 참인디, 읊는 쌀얼 내노라니 요런 북통해 죽을 일이 워뎠겼어.” “양코배기덜이 그 징상허게 생긴 모냥 그대로 우 리럴 아조 비비 틀어 죽일 작정인 것인만. 그리 앓고서야 요런 드린 늬에 법얼 맹글었겼어?”(〈태백산맥〉, 2:57)

시대적 허점을 노려 기회주의적 삶을 영위하는 최익승과는 반대로 민중들은 끊임없는 착취에 분노하는데, 〈태백산맥〉은 이러한 실상을 인물의 입을 통해 전한다. 작품은 이름 없는 여러 개인이 모여 화풀이 하듯 떠드는 이야기 속에서 역사를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민중의 분노는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형태로 된다. 이렇게 생존권에 위협을 받은 민중의 분노는 구체적 저항력¹⁶⁾을 형성하게 된다. 그것은 우발적 사고의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힘의 구체화를 이루어 조직적 저항의 실체가 되기도 한다. 〈태백산맥〉에는 화순탄광사건이나 대구 10월 항쟁과 같은 사건이 설명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애초 그러한 사건이 어떠한 인과관계로 인해서 발생했는가 하는 문제를

16) 화순탄광사건을 비롯하여 대구 10·1항쟁의 경우에도 근본적인 문제는 의세에 대한 거부와 기아에 있었다 할 것이다. 심지연, 『대구10월항쟁연구』, 청계연구소, 1991, 18-21쪽 참고. 애초 생존에 대한 위협이라는 극단의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다면 대규모 민중의 참여도 불가능한 것이었을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항쟁에 참가한 사람들은 미군에 의해 무차별 진압 당하게 되는데, 이는 이후 항미소년들 격대와 같은 화순탄광사건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자녀로 형성되어 구체적 저항력을 양산하기도 했다. 오연호, 『노근리 그후』, 월간말, 1999, 121-133쪽 참고.

소작인의 삶을 통해 보여준다. 강동식의 사촌동생인 강동기, 마삼수, 김복동이 그 경우이다.

강동기 등은 지주인 정현동이 중도들판 농지를 서운상에게 팔아넘기자 정현동을 찾아간다. 하지만 정현동이 계속 소작인들을 우격다짐으로 대하자 소란이 일어난다. 그 외중에 기물이 파손하고, 낙안택의 동생 한갑수가 상해를 입는다. 이후 그들은 풀려나지만 손해배상금과 한갑수의 치료비를 위해 빚을 내야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후 세 명은 소작을 얻기 위해 서운상에게 간다. 하지만 서운상 역시 소작인들의 사정을 들으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모욕적인 언행 일삼는다.

“벌거지 겉은 것덜 죽으나 사나 나 알 일 아니다 머 허고 있냐! 물 찌끄러 내몰아라.”

“머시여, 벌거지!”

눈에 파랗게 불을 단 강동기는 동료들의 외침도 아랑곳없이 서운상을 향해 내달았다. 돌발한 위험을 피하려고 허둥거리며 방문을 열어젖히던 서운상은 비명을 토하며 나뒹굴어졌다. 강동기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또 삼을 치켜올렸다. (<태백산맥>, 4:252-253)

다혈질적 기질과 함께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로 인해 강동기는 입산하게 된다. 강동기는 강동식과 달리 사상과 거리가 있는 인물이었지만 민중을 기아로 내모는 역사, 소작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지주, 소작인과 지주 사이에서 편취하는 마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우연한 사고로 터지면서 이후 강동기의 사상과 삶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

3. 기억의 유포와 전이

역사가 강만길은 그의 저서를 통해 “유신 때는 세상 사람들이 군사독

재정권의 반역사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데는 역사책보다 시대의식이 담긴 소설이 훨씬 더 영향이 크고 효과적¹⁷⁾이라고 생각했음을 밝힌 바 있다. 역사가가 반추하는 역사서의 문제는 인간의 생활이 어떻게 역사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가를 알고자 할 때 있어서 소설의 효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본다. 역사의 사실성과 소설의 허구성이 고착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역사가의 시야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소설이 순수한 허구일 수 없다는 점은, 모든 예술작품이 현실세계의 모방이라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일 것이다. 소설은 목적의식이 분명한 서사장르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설은 작가의 문제의식 하에 모여든 사건과 인물들이 움직이며 끊임없이 현재를 생산하는 장르이다. 소설장르 중 특히 역사소설의 창작목적은 더 분명해 보인다. 역사서가 있는데 역사소설은 왜 필요한가. 역사소설은 史가 아닌 事적 기록으로서 史를 읽게 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역사서술에 있어서 사건발견은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실증적 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가라면 오직 물질적 발견만이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도 있다. 그에 반해 기억은 주관적이고 미시적인 영역으로서 역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라카프라는 저서를 통해 ‘기억과 역사가 상반되는 것이 아니며, 기억은 그 자체로 소중한 사료의 한 형태이며 문서 사료와 복잡한 관계를 형성’¹⁸⁾한다고 했다.

문학작품과 기억의 역사성이 일차적으로 발현되는 지점은 작가와 화해불가능한 과거와의 충돌¹⁹⁾로부터라 할 것이다. <태백산맥>의 작가인 조정래는 그 자신이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을 겪은 인물이다. 그것은 역사

17) 강만길, 『역사가의 시간』, 창비, 2010, 299쪽.

18) Dominick LaCapra, 육영수역음, 『치유의 역사학』, 푸른역사, 2008, 82쪽.

19) “기억의 장이 트라우마에 의해 규정되는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기억이 효과적으로-특히 애도의 양식을 통해-트라우마와 화해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위의 책, 68쪽.

와 조금도 거리를 두지 않은 바로 역사를 겪는 개인으로서의 경험이라 할 수 있다. 그는 1970년 추천되어 <태백산맥>연재 전후인 1984년 전후로 50편이 넘는 중·단편을 발표하며 왕성한 창작을 했는데, 그의 작품 대부분이 시대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작가가 밝힌바 <태백산맥>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경험과 더불어 전작들이 시대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의 테두리 내에서 맴돌고 있었음에 대한 갈증²⁰⁾에 의해 탄생되었다.

<태백산맥>에는 작가 자신과 가족의 모습이 등장한다. 서청사람에게 구타당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커다란 총구멍, 미군을 피해 달아나는 누나의 모습이 작품에서 묘사되는데, 이는 개인으로서 충격적 경험이자 그 자신이 시간을 재생하는 작업을 반복하며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군복만 입었지 군인도 아닌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마당에 뒹굴며 물매를 맞고, 피 흘리며 끌려가던 것을 형제들은 다 보았다. (중략)그 넓은 마당에는 총알껍질들이 덕석에 고추가 널린 것처럼 짝 깔려 있었다. 그리고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중략)동그란 총구멍의 무서움은 어제 아버지가 끌려갈 때도, 조금 전에 끌려나오면서도 오줌방울 질금 거리게 쥐었던 것이다. (<태백산맥>, 8:155-156)

역사적 격변은 인간의 생활을 잔인하게 할퀴며 상처를 폭력적으로 양산했다. 이는 비단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 땅의 불행은 시대적 변화와 때를 같이한 외세의 간섭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외세의 간섭은 멀리 동학운동의 불행한 갈무리에서 일본의 국권침탈, 외세에 의해 주어진 해방과 미국·소련이라는 전승국에 의한 간섭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태백산맥>은 표면적으로 해방 후인 1948년부터 1953년까지의 시간

20) 판도라TV, 인물코리아-조정래편, 2008. 1. 1.

을 다루는 듯 보이지만 그 내부는 훨씬 오랜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작품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의 기억을 통해 펼쳐지는 이 땅의 역사는 밖으로 외세와의 갈등을 통해 안으로 봉건적 사회구조의 모순과 하층민들의 갈등을 통해 전개된다.

관석영감은 원래 별교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고향은 나주였다. 그의 아버지는 나주벌의 대지주 송진사댁의 대를 물리는 가복이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가복이라는 미천한 신분에서 어울리지 않게 글을 깨치고 있었다. (중략) 그의 아버지는 가복의 사슬을 스스로 끊고 동학의 선봉 물결이 되었다. (중략) 그의 아버지는 이미 숨이 끊긴 뒤였다. (중략) 아들은 소작쟁의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일본이 망했고, 땡땡거리던 중도가 그 넓은 땅을 고스란히 남겨놓고 줄행랑을 쳐버린 마당에 아들은 새로운 싸움을 시작했던 것이다. (<태백산맥>, 1:36-43)

하판석 영감의 할아버지에서부터 아들인 하대치에 이르기까지 4대의 간략한 내력이다. 이 글을 보면 하판석의 아버지와 아들인 하대치가 각각 동학운동과 소작쟁의 등 사회 운동에 참여했다. 하대치의 아버지는 가복이라는 신분적 사슬을 끊고자 했고, 하대치는 봉건적 사회질서를 개혁하고자 했다. 작품은 하판석이라는 인물을 둘러싼 시간을 서술함으로써 서둘러 진화한 흔적을 지닌 역사적 근원을 찾아내고 있다. 즉 여기서는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하판석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역사가 유사한 반복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읽어 내고 있다.

하지만 작품이 하판석 영감을 통해 살려내는 역사성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 앞으로 하대치의 아들인 종남과 길남의 운명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암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1세대인 할아버지가 2세대인 아버지를 동학운동으로 잃고, 3세대인 하판석은 4세대인 하대치를 사회운동에 빼앗기다시피 하고, 다시 이어지는 5세대의 종남은 아버지의 좌익 활동으로 인해 극심한 상처를 입게 되는데 이는 단순한 반복 패턴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대치는 작품의 말미까지 생존하여 후일을 도모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태백산맥>에는 소화를 제외한 딸이 부모의 운명을 물려받는 예가 등장하지 않는다. 소화의 유전 또한 주제적 의미를 지닌 유전이라기보다 단순한 관습적 유전으로 읽어진다. 하지만 하대치의 아들인 종남과 길남의 경우 작품의 주제의식과 관련하여 유전을 하는 인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종남과 길남은 아이인데다가 뚜렷한 특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아이들의 운명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장치로 읽을 수 있다. 부연하자면 이 땅의 모순이 사라지지 않고, 민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될 운명적 반복의 연결고리 역할을 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한노인 역시 동학운동이라는 역사의 현장을 기억과 이야기를 통해 전파하는 인물이다.

“녹두장군 전봉준 대장이 인내친 깃발 펄럭임으로 전주감영 뺏은 담에 나라가 불러덜인 청국군 일본군이 밀려들고, 종당에는 일본군이 독판침서 동학군이 패허든 대목을 이약허졌구만.” (중략) 강동기는 눈을 내려감은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갑오란에 대한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었다. 할머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외할아버지한테도, 외삼촌한테도, 이모부한테도, 이웃집 아저씨한테도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다 조금씩 달랐다. 그러나 몇 가지는 누구의 이야기에서나 변함이 없이 똑같았다. 동학군 거의가 농민이었다는 것, 동학군이 용감했다는 것, 동학군은 어디서나 환영받았다는 것, 일본놈들이 잔악했다는 것, 동학군은 졌지만 장했다는 것 등이었다. (<태백산맥>, 453-56)

한노인은 강동기와 김복동, 마삼수, 지삼봉, 노덕보가 둘러앉은 자리에서 동학이야기를 꺼낸다. 동학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잘 이야기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동학군은 폭도로 규정되어 있었고, 동학군에 인성을 부여하는 구전은 자칫 폭도를 미화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학군이야기는 가족과 이웃을 통해 아

이에게 전해졌다. 강동기는 친척과 이웃들을 통해 수많은 동학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도 동학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이에서 더 나아가 강동기는 46년 대구항쟁을 동학농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본다.

이는 <태백산맥>이 기억해 내고자 하는 바를 잘 보여준다. 한노인은 직접 동학운동²¹⁾과 3·1만세를 겪고 대구항쟁을 간접 경험한 인물이다. 또한 작품의 후반부에서 한노인은 염상진의 죽음을 바라보며 또 한 번의 격동적인 역사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태백산맥>에서 한노인의 역할은 바로 기억과 이야기를 통해 이 땅의 역사와 민중 저항사를 후세대에 전이시키고 유포함으로써 역사적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4. 망탈리테와 가능성의 역사

개인의 삶이라는 것은 때로 역사와 아주 무관하게 여겨진다. 그 무관성은 개인의 삶이라는 것이 민족성, 가족성과 같이 계량 불가능하고 어떤 면에서는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과 역사와의 무관성은 오직 사회화하지 않으려는 인간에게서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 한다. 개인의 삶이라는 미시적 탐색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시킬 것이냐는 미시적 관점을 통해 거시적 창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망탈리테²²⁾는 계량화된 자료를 따른다는 점에서 미시사와 거리가 있

21) 조정래는 그의 글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이 우리의 지난 백 년을 규정했듯이 80년대는 우리의 미래 백 년을 규정할 것”이라 밝힌바 있다. 조정래, 『나의 창작교실』,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43호, 238-249쪽.

22) 심성(心性, mentalites)라는 개념은 ‘집단정신 자세’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심성이 집단의 심성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Lucien Febvre, 김웅중

는 것 같지만 미시사가 추구하는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면에 있어서 포괄적 의미²³⁾를 지닌다. 망탈리테사는 그 시대를 살아간 인물들이 남긴 자취, 행위와 성향 등 풍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역사서가 제시한 이데올로기를 넘어서게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역사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태백산맥>에는 전라도 지방의 민속과 문화 등 망탈리테적 요소가 풍부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이는 반드시 지방적 특색을 갖는 것이라기보다 민족적 보편성을 띠는 요소이기도 하다. 절기에 따른 농사 진행, 굿, 세시풍속, 지형지물, 동·식물, 전설과 같은 민속적²⁴⁾ 요소는 이 땅 어디에서라도 수용 가능한 부분일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가능하며, 지배계층보다는 피지배계층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형성·유포된 망탈리테는 <태백산맥>에 형성된 개인들에게 있어서도 행위를 결정하는 기본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민심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가변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건 바람 같은가 하면 안개 같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물 같기도 했다. 바람처럼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으면서 어느 순간마다 언뜻언뜻 느껴지는가 하면, 어떤 결정적인 경우에는 폭풍으로 몰아쳐오는 것이었다. 양조장 정사장 사건을 처리하면서, 평소에는 있듯 만 듯 하던 그들 민간인들의 힘이 네 소작인을 구해내는 연판장으로 일시에 뭉쳐졌던 것이다. 그것은 분명 작은 힘들이 모여져 폭풍으로 돌변하는 모습이었고, 전에는 전혀 경험해본 바 없는 힘의 섬뜩함이었다. 어느 길목에서 갑자기 맞닥뜨릴 때 황급히 옆길을질치며 피하는 그들은 흐릿흐릿 흩어지는 안개밭에 지나지

유킴, 『16세기의 무신양문제:라블레의 종교』, 지만지고전출, 2008, 13쪽. “‘심성적 도구’라는 개념은 한 시대의 문명을 관념이 아니라 실증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관점을 가진다.” 김응중, 『아날학파의 역사세계』, 아르케, 2002, 51쪽.

23) ‘미시사는 브로델류의 계량적 방법에서 반기를 들었지만 인류학적 망탈리테사와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곽차섭, 『미시사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07, 6-7쪽.

24) 손진태는 ‘역사민속학은 ‘역사+민속학’, 혹은 ‘역사적 민속학’ 따위의 평범한 술어보다는 ‘역사과학으로서의 민속학’이란 접근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한국역사민속학회, 『南滄 손진태의 역사민속학연구』, 민속원, 2003, 53쪽.

않았고, 장날이면 호의를 가지고 말을 걸어도 잔뜩 주눅이 들어 말더듬이가 되는 그들은 아무 데도 쓸모가 없는 한 방울의 물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순간에는 한 발 앞도 분간 못하게 하는 진한 안개로 몽쳐지고, 어떤 계기에는 강독을 사정없이 무너뜨리는 성난 물줄기로 한 덩어리가 될 수도 있었다. (<태백산맥>, 4:12)

이것은 군인 심재모의 인식을 통해 전해지는 전라도 민중의 특성이다. 딘테스는 민중의 의미에서 하층민을 지우고 “동일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²⁵⁾으로 민중을 정의했다. 이는 정당해 보인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닌 공통적 감각이 바로 심성이고 민중적 특성이기 때문이다.

전라도 민중들은 오랜 시간동안 수탈을 당했다. 이는 전라도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 하겠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시대적 변화와 맞물린 봉건적 사회구조의 문제점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크고 작은 민란이 일어났던 바 있다. 전라도의 민심이라는 것도 비단 그 지역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전라도 지역은 곡창지대라는 그 천혜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타지역에 비해 많은 수탈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라도 민중으로 하여금 불만이 쌓이게 했지만 위로부터의 억압으로 인해 표출되지 못했고, 그러한 힘이 응축되어 민란의 형태로 사회저항의 움직임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태백산맥>에 형상되는 띄약별을 가리는 밀짚모자, 아낙네들의 머리수건(<태백산맥>3:143)은 그들의 불만과 분노를 감추어주는 도구이다. 눈을 가림으로써 불만 감추지만 모자와 수건이 드리운 그늘을 통해 그들의 감정은 표출되고 전이된다. 이것은 개인으로서 그들이 감정을 지닌 인간이며, 억압에 무조건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전파하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한’²⁶⁾ 또한 민심과 마찬가지로 <태백산맥>에 형상되는 뿌리 깊은 심

25) 김성식의, 『남도 민속의 세계』, 민속원, 2005, 21쪽.

성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이 지난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기존의 역사서가 계량적 수치 혹은 번호, 익명성으로 표기한 개인에게 삶을 부여함으로써 역사적 실재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은 미시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읽혀진다. ‘한’은 단순한 원한 감정이 아닌 구조적 모순과 불합리에 대항하는 중층적 감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태백산맥>의 창작원리나 작품 속 인물들의 삶의 방향 전환과 큰 연관을 가진다 하겠다. “한이야 어디 그렇게 해서 풀려지나. 술 마시고 노래 불러 풀릴 한이라면 한이 아니지”(〈태백산맥〉5:319)와 “한이라는 체험적 사상에 분석적 이론화를 가하고, 실천적 논리화를 가하면 열렬한 혁명세력이 된다”(〈태백산맥〉7:253)라는 이학송의 표현대로 한은 억압 받은 이 땅의 민중이자 개인들이 체험하는 현실적이고 복잡한 감정이라 하겠다.

역사소설에 등장하는 개인은 단순히 ‘한’의 표출하는 인물이 아니다. 작가는 ‘한’이라는 공통적 심성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간 개인들의 삶을 조명하고, 그를 통해 잊혀져버린 민족의 지난(至難)한 역사를 되살려내고 있다 하겠다.

꼬막은 빨밭이 깊을수록 알이 굵었다. 빨밭이 깊으면 밭이 그만큼 깊이 빠지는 걸 알면서도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건 용기가 아니었고 무모함은 더구나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생계였다. 꼬막을 잡아야만 하루 목숨을 잇는 것이다. (……)겨울바람 속의 여인네 모습은 그대로 극한에 달한 빈궁의 표본이었고, 모진 목숨의 상징이었으며, 끈질긴 생명력의 표상이었다. 아미, 그것은 눈물이고, 아픔이고, 한이었다. (〈태백산맥〉, 4:83-84)

26) ‘한은 억압되고 수탈당하여온 민중의 내면에 쌓이고 쌓인 욕구 불만의 응어리인 바, 이 한이 쌓일 때 그 내부에 강력한 에너지가 생긴다, 한의 내부에서 밀어내는 이 에너지가 분출할 때 사회 개혁의 추진력이 생기며, 민중에게 끼친 한의 유인이 소멸되고 한이 소멸된다.’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3, 89쪽.

동백은 남도지방의 꽃이었다. 동백꽃은 질 때도 그 빛깔도 모양새도 변하지 않은 채 꽃잎 하나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꽃술만 남겨놓고 본래의 모양 그대로 똑똑 떨어져내리는 것이다. 마치도 찢빛의 눈물을 떨구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동백꽃을 한 많은 처녀 녀의 환생이라고 했는지 모른다. 또는, 한 많은 청상의 환생이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태백산맥>, 4:225)

(……)우리는 가슴에 서리서리 맺힌 한(恨)을 풀 길이 없어 나무로 환생을 했다. 먹을 것은 전부 부자놈한테 뺏기고 배를 곯을 대로 곯아 걸 모양만 사람이었지 속은 텅텅 비었던 생전의 꼴새 그대로 환생한 까닭에 나무 속도 마디마다 텅텅 비어 있다. 나무를 잘라보면 알 것이니 놀라지 마라. 그 나무를 길게 잘라 한쪽 끝을 뽕족하게 다듬어 그것으로 부자놈 배때기를 찢러 죽여라.(……) (<태백산맥>, 3:314)

<태백산맥>에서 한을 투사하는 자연물은 꼬막, 동백, 대나무이다. 꼬막은 “남자 허는 일 중에서 질 천허게 여기는 것이 배 타는 것인데, 여자 허는 일로 질 천천 것이 꼬막 캐는 일일 것”(<태백산맥>3:19)이라는 하판석 영감의 말대로 꼬막은 막장의 삶을 표상한다. <태백산맥>에 등장하는 여인들 중에는 들몰택이 꼬막을 캐서라도 먹고 살겠다 마음을 먹기도 한다. 좌익활동이나 사회활동 중 남편이 사망하거나 행방이 묘연한 등 역사적 환경으로 인하여 꼬막이 있는 빨밭으로 향한 여인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꼬막이 ‘한’의 상징이 된 것은 단순히 그 일이 힘들다는 것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여인들이 나서는 꼬막 캐기는 남편의 부재를 상징하는데, 남편의 부재는 봉건사회질서와의 대결과 그 좌절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동백꽃의 경우는 그 떨어지는 모양을 통해 한의 정서를 이입시키고 있다. 꽃잎이 떨어지지 않고 꽃이 꽃받침과 함께 똑 떨어져내리는 것은 참수(斬首)를 연상시킨다. 기아를 견디지 못하고 난을 일으켰던 수많은 민중들의 목이 떨어지는 모습과 동백꽃의 낙하가 닮아 있어, 그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섬뜩함과 함께 지난 역사의 상처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나무전설의 경우도 대나무의 특징에 한의 정서를 이입시키고 있다. 대나무전설은 실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작가에 의해 창작되어진 전설²⁷⁾이다. 전라도 지역은 예로부터 곡창지대로서 관리와 지주들의 가렴주구가 극에 달했던 곳이다. 반대로 농민들은 가난과 굶주림을 대대로 유전하며 살아왔다. 대나무의 텅 빈 속으로 농민들의 텅 빈 위장을 상징하고, 리좁(뿌리줄기) 형태를 띤 대나무는 절대 다수의 민중을 상징하고 있다.

<태백산맥>에는 민심이나 ‘한’처럼 비물질적 망탈리테와 함께 바위, 산, 농사, 새, 굿, 전설과 같은 미시사적 요소와 그러한 요소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민중의 망탈리테가 형성되어 있다.

<태백산맥>에 형성된 미시적 요소들은 역사소설 해석에 있어 의미 있는 부분으로 읽혀진다. 그것은 역사성을 구현하는 요소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성의 구현에 있어서 왜 인간의 생활이 중요한가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5. 마무리

역사소설은 독자로 하여금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경험하게 함과 동시에 과거를 통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일들을 예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다분히 역사서적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역사소설의 역사적 기능은 계량적 역사관의 개인소외와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역사소설은 개인

27) ‘전설은 발생목적에 따라서 설명적 전설, 역사적 전설, 신앙적 전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발생동기에 따르면 자연적 전설과 인위적 전설’로 구분된다. 이때 ‘인위적 전설은 특정한 이념적 주지나 교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예가 많다. 김성식의, 앞의 책, 62-64쪽.

의 삶에 주목 함으로써 역사 본래의 기능을 되살린다 하겠다.

본고는 <태백산맥>이 대중적 성공을 거두게 된 요인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한 거시사는 주어진 역사라 하겠다. 비록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모호한 빈틈으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수용자의 자세에 따라 얼마든지 탐색 가능한 조건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삶은 다르다 하겠다. 개인이 어떠한 삶의 조건하에 놓여서,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는지 그러한 모든 조건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표현되는지의 문제는 역사서를 통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삶이라는 것이 사생활처럼 은밀한 의미로 이해되어서만은 아닐 것이다.

우선 <태백산맥>이 다루고 있는 시간은 ‘빨갱이’, ‘좌익’과 같은 세력이 사회적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던 시기이다. <태백산맥>이 등장한 80년대가 여전히 반공을 통해 국민 의식을 통합했던 시기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빨갱이’에게 인성을 부여하거나 민중의 수난사를 그리는 행위가 지닌 위험성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그 위험성을 통해 독자들이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것이다.

문학작품의 대중성은 독자의 호응이라는 담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태백산맥>이 완간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스테디셀러 작품이라는 점은 독자의 요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한 반증일 것이다. 하지만 문학작품, 특히 역사소설에 대한 독자의 기대를 몇 가지의 유형으로 수렴하는 일은 난해해 보인다. 좀 더 깊은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조정래, <태백산맥>1-10, 해냄, 2010.

2. 단행본 및 논문, 신문, 보도자료

강만길, 『역사가의 시간』, 창비, 2010.

곽차섭, 『미시사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07.

권영민, 『太白山脈 다시읽기』, 해냄, 2006.

김기봉외,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학』, 푸른역사, 2008.

김동훈, 한겨레, <‘태백산맥’ 작가 조정래씨 무협의 처리키로>, 2005. 3. 28.

김성식의, 『남도 민속의 세계』, 민속원, 2005.

김용중, 『아날학파의 역사세계』, 아르케, 2002.

심지연, 『대구10월항쟁연구』, 청계연구소, 1991.

오연호, 『노근리 그후』, 월간말, 1991.

이영준, 「‘太白山脈’과 趙廷來를 구속하라」, 『한국논단』, vol. 83, pp. 128-136.

이왕구, 한국일보, <민족통일 위해 남북 모두 화해노력 이성 찾아야>, 2009. 3. 3.

이의범, 「事實과 史實 왜곡한 《太白山脈》」, 『한국논단』, vol. 60, pp. 34-40.

이진경, 『역사의 공간』, 휴머니스트, 2010.

이충재, 한국일보, <검경, 소설 「태백산맥」 수사 “곤혹”>, 1994. 4. 23.

일연, 이가원·허경진·김, 『삼국유사』, 한길사, 2006.

조정래, 「나의 창작교실」,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43호, pp. 238-249.

-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3.
- 판도라TV, <인물코리아-조정래편>, 2008. 1. 1.
- 한국역사민속학회, 『南滄 손진태의 역사민속학연구』, 민속원, 2003.
- 황남준, 「전남지방정치와 여순사건」, 『해방전후사의 인식3』, 한길사, pp. 413-494.
- 황영식, 한국일보, <소설 태백산맥 “이적성 검토”논란>, 1991. 4. 11.
- Bruce Cumings, 김자동 옮김,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986.
- Dominick LaCapra, 육영수 역, 『치유의 역사학』, 푸른역사, 2008.
- Lucien Febvre, 김응중 옮김, 『16세기 무신양문제:라블레의 종교』, 지만지 고전천줄, 2008.

<Abstract>

Microscopic History and Popular Appeal
Illustrated in *The Taebaek Mountains*

Kwon, Eun-Mi*

The Taebaek Mountains consisting a set of 10 volumes is the first to exceed 200th printings, and has achieved popular success. This article takes notice of the factors of popular success this literary work carries. First of all, the popular hit of a literary work can be attributed to proper correspondence with the demands of the times and the readers. In 1980s when *The Taebaek Mountains* was created and completed, socially expressed and manifested were such inherent issues of this country as Japanese forced occupation, liberation, post-liberation incidents related with ideology, the Korean War, and dictatorship along with the demands for democratization. At this point, it is possible to infer that the introduction time of *The Taebaek Mountains* matched the public positive response. However, if one says that such popular success of the work is only connected with periodic issues, one cannot answer why it is possible to secure the rank as a steady seller for 20 year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iece.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popular success of the work derive not only from the proper meeting of demands of the times, but also from appropriate correspondence to the demands of readers through gaining of justifiable explanation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istory

* The University of Ulsan

and men. As there cannot be a different view that everyday life of a man is base of all arts, *The Taebaek Mountains* has a virtue of historical novel through vivid figuration of human life and its contemporary history.

Everyday life of man is a great view that an individual life is figured in a literary work playing variations along in time and space entangled through various courses. An individual entity is the basic composite element in a great view of so-called human life. According to the existing historical view, an individual is understood as a meaning contrary to history. Encounter between individuals, accidental changes, recollection, and a variety of indicators inbuilt within one's nature were all recognized as a marginal sub-history surrounding a history or subjective factors. Historic demand for empirical measure has not properly realized a man as a agent of history through illustration of his history. Accordingly this paper understands that *The Taebaek Mountains* confronts the existing history through figuration of an individual. Moreover, this article uses microscopic method to comprehend the historic meaning of an individual. Microscopic research method will be the right and proper way to explain the issues involving an individual and history.

A historic novel cannot be a history. Nevertheless, a historic novel can play a role in correcting historic books by suitably reviving everyday life of a man. History could not be just quantifiable results. In that a man is always put as a main agent of history, the comprehending of man as a base of history is crucial in discussing history. In conclusion, popular success of *The Taebaek Mountains* has a great relevancy with a tremendous appeal to the readers in respect

to both the inquisitiveness about issues of man and history presented in the work and their precise figuration.

Key Words : microscopic history, macroscopic history, accidental, recollection, nature

■ 논문접수 : 2011년 11월 10일

■ 심사완료 : 2011년 12월 8일

■ 게재확정 : 2011년 12월 12일